

'지역문화 안전망 완주서 구축되나'

군·문화도시지원센터, 내일 '위기 대응체계 구축' 민회
군, 사각지대로 몰린 문화인력 실태 관련 조례 제정 시급
본격 대응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비대면으로 진행

완주군이 지역문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완주군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8일 오후 4시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완주문화민회'를 공동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자리로 완주군을 비롯해 전문가, 유관기관, 예술인, 문화공동체들이 함께 지역문화 안전망 구축 정책화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8개월 넘게 진행된 현장진단과 토론, 연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의식과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문운걸 센터장의 사회로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문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실행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김성석 예술인, 김언경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대표, 김주영 완주미디어센터 센터장, 김춘만 완주군 행정지원과장, 왕미녀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유의식 완주군의원,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장, 이종민 완주문화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 사각지대로 몰려버린 지역 문화인력의 실태부터 진단해왔다.

지역 문화인력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해 단기 문화일자리와 비대면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슬픔을 타우고 이후에도 분야별 문화인력 그룹 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지난 3월부터 열린 문화인력 긴급 대책회의.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현장진단을 지속해 나갔다.

또한 전국의 문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위기대응에 관한 제안사항을 모았다.

완주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계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본격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돌입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각종 의견을 수렴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완주가 전국적 명성을 가진 도시들과 경쟁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완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안전한 문화환경 조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완주문화민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온라인 시민토론회 현장참여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식민지 지식인' 양성에 중점 둔 일제 침탈행위 고발

'수탈의 기억 IV 교육편 할머니의 책가방' 전시
군산역사관서 12월 15일까지
'내선일체' 교육 실상 보여주는
실물·사진자료 170여점 선보여



일제 당시 군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던 어느 학교의 모습.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세 번째 특별기획전을 열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서 세 번째 특별기획전인 '수탈의 기억 IV 교육-할머니의 책가방' 전시를 개최한다.

'수탈의 기억 IV 교육-할머니의 책가방'전은 우리민족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본 민족에 동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교육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양성에 중점을 두었던 일제의 침탈행위를 고발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책가방을 살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주셨던 '나무 책가방', 일왕에 대한 보은감사라 쓴 '도시락', 내선일체가 우뚝 걸린 학교 전경, 근로보국을 위해 체석장에 나간 학생들, 강제징용에 끌려간 여자정신근로대, 어린 학생들의 군사교육과 교내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무기

고 등 일제의 '내선일체' 교육 실상을 보여주는 실물 및 사진 자료 170여 점이 전시 될 예정이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일제의 잔혹한 민족말살정책을 이겨낸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전시인 만큼 '코로나19'로 정신적 물질

적 고통을 감내해온 대한민국 모든 관광객들의 정신적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마스크착용, 1~2m 거리두기 등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면 유익한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난 5일 남원시청에서 남원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 행정력 집중

남원시, 행정협의체 발족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부서 간 문화도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지난 5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에는 12개 2차 예비도시 및 3차 예비도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공무원의 이모저모'라는 주제로 도시 간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콜로키움을 개최하며 역량을 자랑했으며, 이번에는 시내부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남원시는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11월부터 분기별 1회 이상 분과별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며,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부서의 현안사업들을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허태영 행정협의체 위원장은 "갈수록 소득이 증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남원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많은 문화자원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문화도시로서의 여건이 훌륭하다"고 자신했다.

한편, 남원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착연에 이어 올해 순수 시비로 6억원 규모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은 11월 현장실사와 12월 최종심의 발표회를 거쳐 12월 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오늘 재개

이달에만 6회 기획

군산시립예술단이 7일 은파 수변무대 공연장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재개한다.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버스킹'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 방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획했다. 하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및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 됐었다.

이번 버스킹은 10월에 6회 공연을 기획해 은파 물빛다리 야외무대 및 수변무대에서 진행

되며 시민들이 알기 쉬운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준비, 쉽고 친숙하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립예술단 공연이 잠정중단돼 아쉬움이 크게 남았었다"면서 "이번 버스킹공연 재개로 위축되었던 공연들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 코로나19도 극복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삶도 이겨낼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매력 부안 비긴 어게인'

청소년 비대면 버스킹 공연
유튜브 통해 총 4회 생방송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가족들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 언택트 공연 '매력 부안 비긴 어게인' 청소년 문화공연'을 총 4회 생방송으로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공연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매력부안'을 검색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지난달 25일 오후 7시 첫 공연을 시작했으며 오는 8일과 15일, 22일에도 같은 시간 생방송 공연이 진행된다.

당초 이번 공연은 지난 8월 말 부안수생정원 자연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면 비대면 유튜브 생방송으로 변경했다.

공연은 대중음악과 재즈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져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선사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경제·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인 생활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위기(가능)청소년을 조기 발견·예방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새 싹

새싹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창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민이 키우는 새싹의 든든한 양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새로운 입지리 창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지은행사업 등으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농가 경쟁 인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거리·먹거리·놀거리 창출로 농어촌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및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추진활동

공민간의 특화된 행복마을, 행복마을 사회공동체 활동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농어촌에 행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함께 더 나은 농촌을 위해
KRF 한국농어촌공사